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¹⁾

조선의 아르곤댄스컴퍼니
안비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안무자

요약

기독교 무용은 제한적 상황과 다양한 변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쓰임새를 통하여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도구로 점차 기독교무용에 대한 수용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일반무용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기독교 무용의 특성에 따른 기독교무용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인 기독교무용인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 룯, 에스더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리더십과 현대의 기독교무용 지도자를 인터뷰함으로 오늘날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함으로 복음적 무용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기독교 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

첫째,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 영성리더십이 요구된다. 기독교무용은 일반무용과 달리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내면적 표현, 내면적 표현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영성리더십이 요구된다.

둘째, 섬김의 리더십이다. 현재 기독교무용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섬김의 리더십은 지도자가 단원들에게, 기독교무용인들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향해 발휘하는 것으로 권위가 아닌 봉사, 낮아짐이라는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셋째, 동반자 리더십이다. 이는 기독교무용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역자들과의 존중과 믿음, 협력을 통한 하나 됨의 노력이 요구된다.

1) 본 연구는 2015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넷째,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기에 제시된 세 가지의 리더십인 영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 말씀, 기도, 기쁨의 충만함과 충성, 순종, 인내의 태도, 은사개발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인 복음에 대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하여 기독교무용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많은 기독교무용인들이 배출됨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기독교무용이 사용되어지길 바란다.

주제어 : 선교사역, 기독교무용, 리더십, 기독교무용 지도자, 지도자 리더십

I. 들어가는 말

과거 선교활동이 주로 분서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문화를 통한 선교 활동 중에서도 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영역이 문화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사역 중에서도 무용선교 사역은 전문 무용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무용 선교 참여자들의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교육과정에서 역시 일반무용 지도와는 다른 지도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선교활동은 소외계층의 거주지나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에 열악한 환경에서 제한된 장치를 가지고 무대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외면적 요소들 이외에 선교 대상자들의 교육의 수준과 문화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무를 영성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제작한 무용선교 작품을 지도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지도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선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기독교무용은 제한적 상황과 다양한 변수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어서 점차 기독교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무용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선교에 합당한 기독교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독교무용은 일반무용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무용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또한, 일반적인

리더십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무용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대체로 기독교무용 지도자가 여성이기에 구약시대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 룻, 에스더와 현대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인 3인의 리더십을 통하여 목음적 선교무용을 완성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 지도자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반적 리더십

일반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ability), 조직의 구성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influence), 리더가 추구하는 마인드에 따라 조직을 통솔하는 지도력(leadership)을 떠올릴 수 있다(강미리, 2015, 7). 즉 여럿이 함께 걷는 길에서 낙오자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다. 리더십과 유사한 용어로는 관리, 지휘, 통제, 통솔, 행정 등 군대조직에서 유래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개념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리더십이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또한 리더십의 정의는 850가지 이상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헨리 블랙커버, 토마스 블랙커비, 윤종석, 2014, 58-59).

존 가드너(John Gardener)는 리더십이란 개인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범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제임서 맥그리거 번즈(James Macgregor Borna)는 리더십이 특정 동기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경쟁이나 충돌 상황에서 따르는 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및 기타 직원들을 동원할 때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스왈드 샌더스(Wswald Chambers)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리더십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리더십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첫째, 방향을 설정한다. 리더십은 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정함으로써 뚜렷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리더십은 사람들을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체는 한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단체는 구성원들 간의 협업과 관계성이 어떠한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대표의 능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의 능력인 것이다. 셋째, 리더십은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동기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게 하는데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협업하며 한 방향으로 가도록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존 코터, 다니엘 골먼, 이덕주, 2015, 96-7)

일반적인 리더십으로는 정치 리더십, 기업 리더십, 영적 리더십, 기타 다양한 리더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정치리더십은 리더에 대해 불신이 표출된 가장 공적인 분야이면서 올바른 리더십이 반드시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세계 역시 정계 못지 않게 리더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기업의 리더십은 일터가 모여서 일하고 봉급을 받는 단순한 장소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쏟아 붓는 자기표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헨리 블랙커비, 토마스 블랙커비, 윤종석, 2014, 34-35).

최근 영적 리더십이 조명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성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초월적인 것 그 자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고 통합하려는 과정과 그 경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김득남, 2010. 36). 지금 사회는 영적 분야에 관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 등 불안한 사회에서 종교는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종교 기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Ⅲ. 기독교 리더십

기독교리더십이란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삼아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은 인간의 뜻, 인간의 협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반하여 성경적 리더십은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리더십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크리스천 리더란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소명),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성품),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능력)”라고 정의하며 로버트 클린턴(Clinton, J Rovert)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룹에게 그 그룹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리더십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발견한 리더십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 책임감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자 곧 예수님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다.

기독교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 영성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으로 나눌 수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 중심은 청지기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리더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섬기는 리더십은 자신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섬김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섬김의 행위는 시종일관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헨리 블랙커비, 토마스 블랙커비, 2014, 197-102).

동반자 리더십은 때로 크나큰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면서 진정한 동반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을 말하며 큰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곁에서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지원한다. 동반자 리더십은 리더십 뿐만 아니라 리더와 연결된 조력자들의 리더십을 포함한다.

영적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세속사회를 탈출함을 뜻한다. 즉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의 삶(고린도전서 2장 14-15절)이 바로 영성이다. 이 영성은 내면으로만 치닫는 축소적인 행위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총체적인 응답이라고 하였다(알리스터 맥그라스, 박규태, 2005, 9). 즉 영적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는 리더를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십에 대하여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며, 성령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책임 지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헨리 블랙커비, 토마스 블랙커비, 2014, 64-66)고 하였는데 영적 리더십은 곧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자가 리더십은 소망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본다는 점에서 소망의 신학을 토대로 한다(알리스터 맥그라스, 2005, 12). 십자가 리더십은 세상의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따돌림을 당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고난, 고통, 배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즉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분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주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리더십의 역할은 일반적인 리더십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며 간결하다.

기독교 리더십의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리더십의 핵심

은 섬김과 순종이다. 문제는 ‘어떻게 다스리고 섬길 것인가?’이다. 이 ‘어떻게’라는 것이 리더십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리더십이 그 부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상실했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리더십이 큰 도전과 시련 앞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에 뿌리박은 기독교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IV.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1. 드보라의 리더십

사사 드보라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구원하였는데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방 여인인 야엘로 마무리 하신다. 드보라가 사사가 된 시기에는 여성에 대한 많은 제제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연약한 바락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였다. 이 가운데 나타난 드보라의 리더십은 첫째, 믿음의 리더십이었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이나의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었다(박유미, 2009). 당시에는 드보라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나면 여성 사사를 사용하신 것이다. 둘째, 협력하는 리더십이다. 혼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군대 장관 바락 쫓아나, 이방여인 야엘과도 편견 없이 잘 협력하여 전쟁을 마무리 하였다. 드보라는 업적을 독차지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동역자를 세워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야엘의 마무리도 있었지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도 바락과 함께 함으로 바락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세 번째, 감사와 기쁨의 리더십이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락과 함께 지어 불렀다. 드보라의 노래는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보다도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불리워졌다(비전성경, 2006).

여성 사사 드보라는 선지자, 재판관, 구원자이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모성애가 충만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드보라는 모세에 비견되는 인물로 묘사되는데(조성호, 2012, 277)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도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한 역사에 비견되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2. 룯의 리더십

룯기는 사사기의 뒤를 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룯기는 혼란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이방 영인 룯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그를 통한 룯의 리더십이 엿보이고 있다.

룯의 첫 번째 리더십은 믿음의 리더십으로 룯기 1장 16-17절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룯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강력하게 청하고 있는데 이는 룯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보다는 나오미가 평소에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룯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양애리, 2013, 28). 두 번째는 인내의 리더십이다. 룯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오미와 함께 살았을 뿐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도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여인에게 못 마땅한 모습을 보였겠지만 룯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면서 꼭 참고 기회를 엿본 것이다. 세 번째는 동반자 리더십이다. 룯기에서는 룯의 리더십과 더불어 나오미의 리더십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오미와 룯의 동반자 리더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룯기는 과부 된 입장에서 서로 의지하며 며느리에게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 주고자 지혜를 짜는 나오미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룯의 동반자 리더십이 빛나는 내용이다.

3. 에스더의 리더십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서 에스더만큼 칭송을 받고 있는 여성은 드물지만 에스더의 리더십보다는 모르드개의 리더십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르드개의 지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하라는 모르드개의 말에 에스더가 처음에는 망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리더십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믿음의 리더십이다. 잔치가 벌어지는 왕궁 생활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행동의 표현이다. 두 번째, 순종의 리더십으로 비록 많은 지혜가 모르드개에 의해서 공급되지만, 에스더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왕후 간택을 할 때도,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전략을 그대로 순종하였다. 셋째, 용기의 리더십이다.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왕 앞에 함부로 나가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를 감수하고서 왕 앞으로 나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정해진 제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것이다(유연희, 2013, 125). 네 번째, 인내의 리더십이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신중함의 리더십 즉 인내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삼일 금식하는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고 또 왕을 만나자마자 하만의 음모를 당장에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만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것이다. 다섯째, 동반자의 리더십이다. 왕을 살해하려는 신하들의 모의를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공적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여 궁중 일기에 기록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만을 죽인 후 왕이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상으로 주자 에스더는 아무 망설임 없이 모르드개에게 준다.

에스더서 전반적인 내용이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개를 더 비중있게 다룬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에스더의 리더십이 부정적이거나 한계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에스더의 리더십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구약성경에서 여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 직접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 편에서 예언하고, 헌신한 지혜자로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타국의 왕후에 까지 리더십을 발휘한 탁월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다(양애리, 2013, 68).

이상 구약시대의 세 명의 여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리더십은 인내의 리더십과 동반자 리더십이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역사를 드보라, 룻,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동반자 리더십은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드보라와 야엘, 나오미 룻,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상황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불가능한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현실로 바꾸었다(김지은, 2000, 41). 이들은 아름다운 드림팀으로 비전과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V.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1. 연구방법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은 문화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기독교무용 단체들의 공동체성의 중요성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학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기독교무용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자 선정

선교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무용 단체의 지도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인터뷰 대상자 들은 기독교무용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 3인을 선정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자

No	성명	경력	비고
1	J	26년	현재 교수 재직 중
2	O	10년	과거 교수 재직 이력
3	H	7년	구립문화원 선교무용단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선정한 단체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자생적인 단체이며, 단원들 개개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초교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의 경우,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선교활동에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활동 영역이 믿음 안에서 수용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였다.

둘째, 다양한 선교무용의 장르 중 현재 국내외의 선교의 현장에서 활발히 쓰임 받고 한국선교무용단체 3곳으로 제한하였다

4. 인터뷰 대상자들의 응답 비교

Table 2. 인터뷰 응답 비교

질문	J	O	H
단체명 (단원수)	A단체 (약 100여명)	H단체 (14명)	G단체 (11명)
신앙경력	약 30년 (결혼 후)	약 50여년 (고등학교)	약 50여년 (어릴 적부터)
동기	믿음의 확신	먼저 시작한 이를 통한 결단	먼저 시작한 이를 통한 결단
지도자경력	1989년부터	2002년부터	2008년부터
지도방법	실기와 이론, 영성훈련 병행	실기위주 영성훈련-지교회에서	실기위주 영성훈련-외부목사님초청
적용리더십	믿음, 성령충만 순종, 충성, 절대적 사명은 영혼구원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내, 겸손, 공동체의 흐름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 섬김, 복음
지도시 중점사항	기능도 중요하지만 신앙우선 코람데오, 섬김	실력을 바탕으로 한 영성	진정한 예배자 사랑, 섬김, 복음
일반무용단과의 차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복음·선교의 도구 믿음의 리더십이 필요	연습은 일반무용단처럼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 외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은 동일, 예배자로 서로의 위로자, 협력자가 되는 것
무용단 운영시 보람	영혼구원의 현장을 볼 수 있음에 감사	단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기쁨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점
리더로서 힘든점	짧은 연습시간과 만남으로 인한 협력, 서로간의 이해,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재정 시간적 여유	경제적 부담 시간적 여유
무용단 유지를 위한 노력	지도자로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함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내려놓음 술선수범 기초를 튼튼하게 작업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 섬김
선교시 필요한 태도 및 리더십	선교사로서의 도전과 결단 선교공연자체가 예배 섬김의 리더십	열린마음 내려놓음	기쁨, 기도, 감사, 믿음
롤모델	말씀이 기준 코람데오 강조	다윗	실명거론 없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긴 지도자
기독교무용이 추구해야 할 자세	춤추는 목회자 성령충만 섬김, 순종	기도 내려놓음	말씀과 믿음 은혜 나눔 교제
요구되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영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복음의 리더십

5. 인터뷰 결과

앞서 진행된 3인의 기독교무용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크게 영성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

영성은 기독교무용 지도자 뿐 아니라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영성은 일반무용과 기독교무용의 차이점이기도 하며, 일반인과 기독교인, 일반무용인과 기독교무용인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3인의 지도자는 믿음, 성령 충만, 인내, 겸손, 순종, 복음 등의 덕목을 지속적으로 거론하였다. 긴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덕목이 결국 영성이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자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영성 리더십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무용에서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기독교 무용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덕목이다. 영성이 없는 춤은 일반무용과 다른 것이 없으며,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가 될 뿐이다. 더욱이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 영성은 현재 지도와 안무를 모두 겸하고 있는 특성상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기독교무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 영성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영성은 기독교무용 지도자와 기독교 무용인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섬김의 리더십은 3인의 대상자가 모두 중점을 두고 있는 덕목이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무용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듯이 기독교무용 지도자도 섬김을 통하여 아직 미약한 기독교무용인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성과 섬김의 리더십이 3인의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리더십의 경우는 각 기독교 무용 지도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난 리더십이다. 공통된 리더십이 아닌 각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살펴볼아야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무용 단체가 같은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상자 J와 O의 경우, 실력과 영성의 동반 성장을 중요하게 꼽았다. J의 경우 기독교 무용의 실기 뿐 아니라 이론에 대한 강의도 중요시 하였는데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독교무

용의 이론에 대 강조하고 있다. O의 경우 이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수는 없으나 영적 작품의 전달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실력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춤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무대가 좋아서만도 아닌 영성과 실력이 겸비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J와 H의 경우, 일상에서의 경건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대상자 J의 경우, 기독교무용을 하는 사람은 춤추는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대상자 H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상자 O의 경우 역시 기도와 내려놓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그들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가르침은 대상자 3인 모두가 먼저 술선수범 함으로서 기독교무용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이는 지도자의 술선수범이 각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흡수되어 작품을 통해 영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 발휘되어야 하는 리더십은 술선수범임을 알 수 있다.

VI. 결론

기독교무용은 신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한다는 바탕은 일반무용과 동일하지만 일반무용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기독교의 근본에 맞추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기독교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춤을 추는 무용수 뿐 아니라 무용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전달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적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단독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서 많은 수의 기독교무용을 하는 여성들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인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기독교무용인이 양육되어야 하며 이에 이들을 지도하는 기독교 무용 지도자의 역할과 가들을 지도함에 있어 발휘되어야 하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 룻, 에스더를 통한 여성 리더십을 살펴보았으며 덧붙여 여성 구성원이 대다수인 기독교 무용계에서 여성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지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5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오늘날 한국 기독교무용 지도자 3인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기독교 무용 지도자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하여 인터뷰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는 영성리더십이 요구된다. 기독교무용은 일반무용과 달리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내면적 표현, 외면적 표현까지 예수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리더십을 통한 기독교 무용인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믿음,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영적 통찰력 발휘, 성경에 바탕을 둔 지도력 등이 요구되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

둘째, 섬김의 리더십이다. 기독교무용 지도자 3인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상자 J는 성령 충만한 믿음과 영혼구원 그리고 열정을 강조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대상자 O는 인간관계와 영성을 강조하였고 대상자 J와 마찬가지로 섬김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대상자 H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조하면서 사랑과 섬김, 복음 리더십을 나타냈다. 인터뷰 결과 영성은 기독교무용 지도자 뿐만 아니라 기독교무용수가 모두 갖춰야 할 덕목으로 대상자 J와 대상자 O에게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상자 H 또한 섬김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기독교무용 실력은 영성과 함께 훈련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의 생활과 술선수범의 실천이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반자 리더십이다. 이는 기독교무용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역자들과의 존중과 믿음, 협력을 통한 하나 됨의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상기의 3가지의 리더십은 반드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기에 제시된 세 가지의 리더십인 영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을 구약의 여성 3인과 기독교무용 지도자 3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리더십으로 기독교에서 영성 리더십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만남을 강조하는데 이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다시 성령, 말씀, 기도, 기쁨의 충만함과 충성, 순종, 인내의 태도, 은사개발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인 복음에 대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선교의 도구로 활발히 쓰임 받고 있는 기독교 무용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짐으로서 더욱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기독교 무용이 쓰임 받기 바란다.

참고문헌

- 개혁개정 비전성경. 서울: 아가페
알리스터 맥그라스, 박규태 옮김(2005).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서울: 추천사

- 헨리 블랙커비, 토마스 블랙커비, 윤종석 옮김 (2014).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 서울: 두란노
- 헨리 블랙커비, 홍종락 옮김 (2010). 『동반자 리더십』. 서울: 요단출판사
- 다니엘 골먼, 존 코터 외 12명, 이덕주 옮김 (2015).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서울: 매경출판
- 김지은 (2000). 『새로운 미래를 연 나오미와 룻의 연대』. 한국여성신학, 41
- 유연희 (2013).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의 복잡한 유산』. 구약논단. 제19권 3호. pp.123-151
- 조성호 (2012). 『기독교 리더십과 영성의 상관관계』. 신학논단. pp. 250-297
- 강미리 (2015). “무용지도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기독교 리더십 적용”.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득남 (2010).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학적 소고-김수환추기경 리더십 사례”.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양애리 (2013)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한국 교회여성의 선교”,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 박유미 (2009) 『드보라의 리더십』. 교갱협 제14차 영성수련회 특강자료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선교사역을 위한 기독교무용 지도자의 리더십	발표자	조선의, 안비화
		논찬자 (소속)	이선경 (명지대학교)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문화선교사역의 수단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무용은 교회 안에서 예배무용으로 시작되어 발전 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용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공자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무용은 일반무용과는 달리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복음전파를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용 지도자들보다 더욱 더 섬세하고 늘 깨어서 기독교무용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무용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긴 생명력을 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기독교 리더십은 인간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발휘되는 리더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구가 많은 기독교무용계의 특성에 따라 구약에 나오는 드보라, 룻, 에스더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기독교무용 단체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 3인을 선정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가 제시한 기독교 무용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리더십은 영성 리더십입니다. 이는 기독교무용에서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단 한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영적 통찰력을 통한 영성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무용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두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자신을 낮추고 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용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입니다. 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무용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리더십은 동반자 리더십입니다. 기독교무용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비단 인간과 인간의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신뢰를 유지하고 동역자들과의 존중과 믿음, 협력을 통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무용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성과 섬김, 동반자 리더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만남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면 영성과 섬김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무용 지도자는 교육을 통하여 다수의 생명을 어둠에서 구원해 낼 수도 있고, 실족케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제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 무용은 제한적 상황과 다양한 변수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지도자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선교의 현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지도자에 따라서는 리더십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그에 맞는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영성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 이를 전제하는 뿌리 깊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